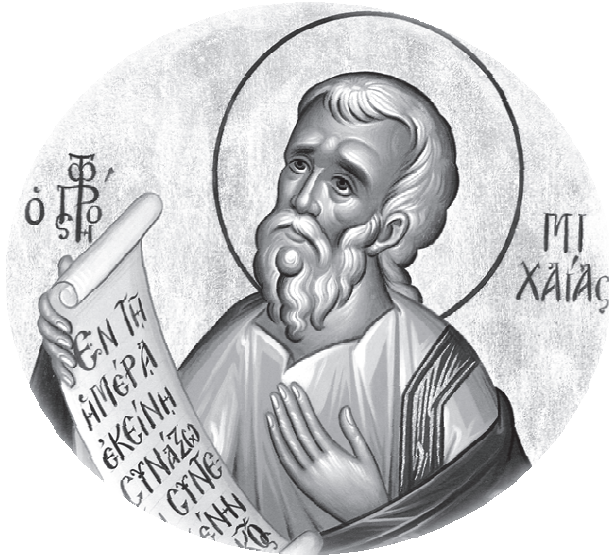




#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미카 예언자

## 마태오 제11주일

성 포티오스 순교자

제2조, 조과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2응송 구세주 변모 축일 / 178, B 181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A 212
- 구세주 변모 축일 입당송 / 178, B 182
- 구세주 변모 축일 찬양송 / 178, B 181
- 성당 찬양송
- 구세주 변모 축일 시기송 / 178, B 183
- 사도경 : 고린토 전 9, 2-12 / 봉독서 211
- 복음경 : 마태오 18, 23-35 / 115, B 48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미카 예언자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730년 전에 살았던 거룩한 예언자 미카를 8월 14일에 축일로 기념합니다.

그는 구약성서의 소(小) 예언서 중 세 번째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로서, 그 시대의 윤리관과 영적 타락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쓴 소리를 했습니다. 미카 예언자의 책은 모두 불 같은 설교로 불의와 약탈을 고발하고 있고, 그래서 읽을 때마다 마치 예언자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계셔서 이 시대의 불의를 질책하고 있다는 느

낌마저 들게 합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예언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록 어느 한 시대의 기록이지만,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에 적용됩니다. “만민들아 들어라.”(미가 1:2)라고 호령하며 예언자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루가 21:33)



## 성모님을 비롯한 성인들과의 친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영적 생활을 돕는 과정에서 중보 기도에 의존하기도 한다. 서로 간에 기도를 부탁하며 “올바른 사람의 간구가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야고보 5,16)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만 하느님께 전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보면 그리스도교 초창기부터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로 떠나간 이들에게 뒤에 남은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도록 부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죄에 얽매인 모든 영혼에 대한 연민 어린 사랑이 내심에서 자라나며 그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가 삶 속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혼을 더 깊이 알고 또 성령의 은총으로 더 밝게 조명받으면 그만큼 자신의 죄를 더 깊이 통감하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근심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지상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 사이에는 기도의 친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날마다 알려진 몇몇 성인들의 기념일로 봉헌되고 있다. 성인들에게 바치는 찬양가에는 이분들의 영적 투쟁 이야기가 담겨있으며 중보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일러 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히브리 13,7)라고 권고하는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성인들의 영적 투쟁과 승리를 기억함으로써 하느님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찬양한다. 이것은 성인들 안에서 실현된 구원을, 힘겹게 투쟁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자신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체험케 하고 쟁취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다.(필립비 3,12, 14 참조)

성인들 중의 첫째이시며 언제나 찬미를 받아야 할 분은 평생 동정녀이신 성모 마리아 이시다.(루가 1,28 참조) 성모님 안에서, 세례자 요한 안에서, 사도들 안에서, 순교자들 안에서 그리고 이분들을 따르는 무수한 제자들 안에서 동정성이 타락하기 이전에 본래 지녔던 영예를 되찾게 되었다.(창세기 2,25)

성인들에 대한 공경과 기도를 통한 친교는 교회의 산 체험이다. 이런 체험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성인들과의 친교를 기도의 친교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교회는 성삼위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외에 그 누구도 흠송하지 않았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성인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인간에게 전하는 도구로서 공경을 받을 뿐 숭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성인들의 덕성을 본받아 우리 자신도 올바른 수덕생활을 하고 또한 그분들이 하느님께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해 주시면서 우리도 그분들과 같이 성스러운 삶을 살도록 기원하는 데 있는 것이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 성모님의 안식 2

“오 동정녀시여, 우리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당신은 낙원이십니다. 왜냐하면 부패하지 않는 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꽃피우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동정녀이시라고 부를까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남자의 씨가 없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출산 전에도 동정이셨고, 출산 도중에도 동정이셨고, 출산 이후에도 동정이십니다.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를까요? 이 또한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로서 당신은 모든 이들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천국이라고 부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정의의 태양이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 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고귀한 여성이시여, 우리들과 당신 자신은 둘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소서. 당신의 품에 안고 계신 아들에게 청원해 주시고, 우리가 투쟁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동정녀시여, 지상에서 하늘로, 부패에서 부패하지 않는 상태로, 이 세상의 슬픔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이 썩어 없어질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소서. 오 동정녀시여, 하늘의 빛으로, 천사들의 찬양가로, 모든 성인들의 영광으로 서둘러 가소서. 오 동정녀여, 당신의 아들이 계신 곳으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능이 있는 곳으로 재촉하여 가소서. 그곳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예언자들이 영광을 돌리며, 대천사들이 왕의 어머니를 찬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불켜진 등잔이며, 저 위의 천국이나 하늘보다 더 넓은 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류의 중보자이십니다.”

▶ 아타나시아



### 전주 성모 안식 성당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성모안식 축일을 맞이하는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일라리온 신부님을 비롯하여 모든 신자분들이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고, 더욱 더 성장하는 성당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 소 식

### 대교구

■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 ▷ 지난 8월 6일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와 에레미야 조경진 신부,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 로만 카프착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요한 보제가 함께 집전하면서 축일 성찬예배를 거행했습니다. 각 지역 성당에서 신자들이 참여하였고, 슬라브어 사용 신자들과, 여름 수련회에 참여한 학생들과 선생님들, 봉사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성찬예배 후에는 다 함께 사랑의 오찬을 나누고, 점심 식사 후에는 수련회 참석하신 학생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배웠던 주제, 구호, 노래 공연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여름 영어 캠프 ▷ 정교회 한국대교구의 추천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신데즈모스 수련회에 이어서 7월 30일(월)부터 8월 4일(토)까지 초등부, 8월 4일(토)부터 8월 6일(월)까지 중·고등부 여름 영어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30일 각 지역 성당의 학생들이 도착한 오후에 정교회 한국대교구의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께서 이번 캠프의 주제인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수련회의 세 가지 목적인 배움과 영적 수련과 친교에 대해 말씀해주시면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수련회의 책임자인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와 부책임자인 엘레니 조혜원 교수가 주방봉사자들, 원어민 영어 교사들, 보조교사들, 매일의 일정과, 굳건한 신앙인, 강한 신앙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용감한 신앙인, 깨어있는 신앙인, 충성스런 신앙인이라는 각 반의 이름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이름들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하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시간을 가졌고, 매일 오전에는 영어 공부, 오후에는 야외 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초등부 수련회에는 모두 약 55여 명, 중·고등부 수련회에는 모두 약 40여 명이 함께하여 더욱 더 풍성한 수련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이끌어주신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의 대주교, 수련회 총책임자이신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에레미야 조경진 신부,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를 비롯하여, 영어 원어민 교사로 오신 Katerina Kallis, Sarah Manuel, Maria Mokka, Melpomeni Mokka, Gia Hamalis, Konstantinos Christopoulos, Panagiotis Koussoulas 그리고 수련회 부책임자인 엘레니 조혜원 교우과 스텝으로 라파엘 이상윤, 크리스티나 조혜린, 논나 권새롬, 안젤라 이나영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해주신 바실리오스 이성일, 테오도티 이정아 사모, 아나스타시아 박혜경 사모, 베로니카 박인애, 아글라이아 조희영, 안나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름 영어 캠프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 도움이 필요합니다 ▷ 지난 주 주보에도 알려드렸듯이, 그리스 아테네 근방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정교회에 도움을 준 그리스정교회에 이번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을 모아서 그리스정교회를 통해 각 구호 단체에 보낼 것입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부산 성모 회복 성당

■ 여름 수련회 ▷ 지난 7월 27일 - 7월 29일(2박 3일) 동안 유·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함께 어울리며 '좋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련회를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 8월 1일(2박 3일)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은 주제로 경남의 한 지역에서 바다와 계곡을 오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식을 하며 청소년들의 관심인 이성 관계 등 정교인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과 윤리에 대해 지도교사와 더불어 토론을 갖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수련회를 마쳐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해주신 지도교사들과 봉사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주간 예식

■ 8월 15일(수) 성모 안식 축일 ▷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이어서 광복절 영광식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